

영어 학습자 도구 키트 소개

미국 교육부 (ED)와 법무부 (DOJ)는 지난 2015년 1월 7일 공동 지침을 발행했다. 이는, 모든 영어 학습자들이 고급 교육을 받고 최대한의 학업 가능성을 달성할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것을 연방법을 따르는 모든 주, 학구, 학교에게 상기 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으로 미국 교육부 산하 영어습득국 (OELA)는 [민권담당국과 법무부의 “친애하는 동료 편지”\(DCL\)를 동반하는 영어 학습자 \(EL\) 도구 키트](#)를 제공한다. 본 도구 키트는 영어 학습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다하고 모든 영어 학습자들이 대학 및 직업 준비 기준을 만족하면서 영어 능력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립 및 지역 교육 기관들 (SEAs 및 LEAs)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본 [영어 학습자 도구 키트](#)는 우선적으로는 주, 구, 학교의 행정관들과 교사들을 위해 고안됐지만 기타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관련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지난 몇달간 연재 형태로 발행된 영어 학습자 도구 키트의 열 챕터는 2015년 1월 친애하는 동료 편지(DCL)의 열 개 섹션에 부합한다. 각 장은 (1)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민권과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 (2) 주립 및 지역 교육 기관들 및 학교가 자기 점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점검표, (3) 주립 및 지역 교육기관들 및 학교가 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되거나 응용될 수 있는 예시 도구들 및 (4) 추가 관련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을 제공한다.* 본 도구 키트는 영어 학습자에 대한 모든 자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시일 뿐이다. 구독자의 편의를 위해 도구와 자원은 무료로 제공되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도구 키트는 다음의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모든 영어 학습 학생들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 제2장: 영어 학습자들에게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 제3장: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직원 채용 및 지원을 위한 도구와 자원
- 제4장: 영어 학습자들이 핵심 교육 과정 및 과외 프로그램을 동등하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 제5장: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차별을 피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 제6장: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도구와 자원
- 제7장: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참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 제8장: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을 모니터하고 그들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치기 위한 도구와 자원
- 제9장: 학구의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 제10장: 영어 미숙 학부모들과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영어습득국 (OELA)는, 교육부의 임무의 일원으로서, 영어 학습자들 및 이민자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습득하고 엄격한 학업 수준을 달성 할수 있도록 보장하며, 영어 학습자들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주요 문제들을 발견하며, 영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립 및 지역의 체계적인 개혁의 노력에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리더십을 제공한다. 2015년 1월 친애하는 동료 편지(DCL) 와 함께 사용될 본 도구 키트는 주립 및 지역 교육기관들이 영어 학습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상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습득국 (OELA)은 미국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국 (OESE), 민권담당국 (OCR), 교육과학원 (IES), 자문위원회 (OGC), 특수 교육 및 재활서비스국 (OSERS), 및 미국 법무부 (DOJ)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본 도구 키트의 개발을 주도했다. [전국 영어습득 정보센터 \(NCELA\)](#) 또한 본 도구 키트의 개발의 필수 기관이다.

*본 지에 언급된 어떤 제품, 물품, 서비스 또는 기업도 교육부의 공식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거나 추론할 수 없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 도구 키트는 URL 을 포함해서 외부 조직들에 대한 정보 및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기 정보의 포함이 교육부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